

서울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연이어 초대전을 갖는 노의웅 화백.

“구름천사’ 시리즈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요”

노의웅 화백 초대전, 23일~3월 1일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금강산의 향연’ 등 75점 전시...3월 3일~9일 광주 무등갤러리서도

노의웅 화백의 작업실에 놓인 이젤 위에는 전시회에 내 보낼 마지막 작품이 놓여 있었다. 노 화백은 트레이드마크인 ‘구름천사’ 시리즈에 막 사인을 한 참이었다. 동심 가득한 구름을 의인화한 천사들의 모습에, 2022년 임인년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함께 자리한 작품은 울동감 넘치는 노란색 바탕과 어우러져 인상적이다.

노의웅(78) 화백이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초대전을 갖는다. 서울 전시는 인사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1층 그랜드관(23~31일)에서, 광주 전시는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3월3일~9일)에서 열린다. 광주전은 2022무등갤러리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돼 진행된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앞둔 그를 광주 노의웅미술관(남구 수촌안길 7)에서 만났다. 이번 초대전에는 ‘금강산의 향연’ 등 300호부터 1호까지 모두 75점을 출품, 작품 세계를 오롯이 보여줄 예정이다.

“예전에는 전시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씩 부담감이 생기네요. 서울 애호가들이 ‘구름천사’ 시리즈 등 제 그림을 어떻게 봐 줄지 반응이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기대감도 큼니다.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대표작 ‘구름천사’는 어릴 적 추억에서 길어올린 소재다. 풀밭에 누워 파란 하늘 위에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할 때, 송이 송이 구름은 동물같기도, 천사같기도, 꽃같기도 했다. 60여년의 화업 중 30년 정도 ‘구름천사’를 그리다 보니, 그의 이름 대신 ‘구름천사 작가’라고 부르는 이들을 만날 때면 기분이 좋아진다.

밝고 화려한 색감, 몽환적인 화면구성으로 이뤄진 ‘구름천사’ 시리즈는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 포근한 부모의 사랑, 가족의 행복, 고향에 대한 추억, 아름다운 자연 등이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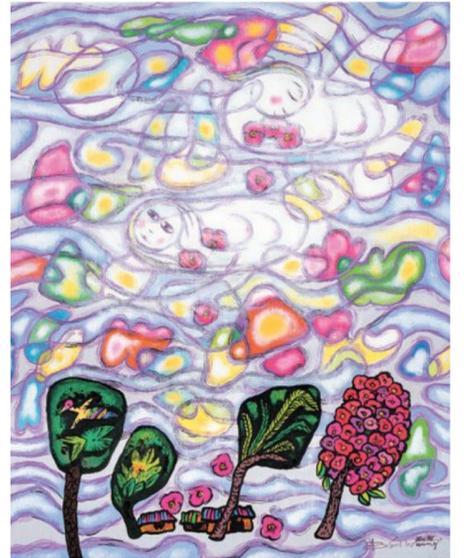
한편의 동화처럼 펼쳐져 사람들을 미소짓게 한다. 같은 주제로 작업을 하려면 그만큼 차별화를 위해 고민하기 마련이다. 작업실 책장에 꽂혀 있는, 수십권의 얇은 구상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스케치를 많이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수도 없이 스케치를 하지요. 스토리와 형태에 맞는 색채를 찾는 데도 공을 들이구요. 하늘에 구름천사가 떠 있을 때면 은은한 색감을, 구름천사가 단독으로 주인공이 될 때면 강렬한 원색을 씁니다. 초창기 작품은 하늘에 구름천사가 꽃비를 내리주는 모습 등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점차 추상을 기미한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추상성이 좀 더 가미된 작품들을 해 보려 합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금강산의 향연’은 금강산 1만2천봉을 남북한 사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수차례 금강산을 방문해 그린 50여장의 스케치가 바탕이 됐다. 붉은 빛을 주조로 한 강렬한 색감과 독창적인 화면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 ‘불로 초여인’, ‘옥수수 여인’, ‘꽃가죽’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출품작들은 모두 전시장에 둘러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노 화백은 자신의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이다. 중학교 시절 종이 장판 위에 처음 그렸던 유화작품을 비롯해 자신의 그림 역사가 담긴 ‘거의 모든 작품’을 보관해 온 그는 지난 2020년에는 중고등학교 시절 작품 20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팔순이 가까운 나이이지만 그는 인스타그램도 적극 활용한다. 지난 2020년 후배 작가의 권유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그는 자신의 작품 1500점을 모두 올려두었다. 이번 전시 역시 인스타그램을 보고 제안이 왔고, 용인의 근현대미술관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제자나 후배들에게



‘구름천사’

SNS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그는 지금도 새벽 3~4시면 일어나 작업을 시작한다. 붓을 잡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하다. 노 화백은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들이 기다려진다”며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고마운 시간”이라고 말했다.

노 화백은 호남대 예술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일본예술공문상,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프랑스 라망시정 초대전 등에 참여했고 청동회·목우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원광연 광주연극협회장 연임

원광연(사진) 제12대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장이 연임됐다.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는 최근 정기 총회를 열고 제13대 지회장에 원광연 현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원 지회장은 4년 더 협회를 이끌게 됐다.

원 지회장은 “인기동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광주 연극인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광주연극제, 광주학생연극제, 광주국제평화연극제를 한층더 굳건한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 13대 지회장 선거는 사전투표와 후보 정견발표, 본 투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지회장에는 송정우·양선영 씨가 선출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한 생태’

문학평론가 석연경 시인 ‘생태시학의 변주’ 출간



생태 위기는 자연과 인간의 삶까지 위협을 한다. 생태의 근본적 관점은 삶과 죽음이 하나이며 나와 내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생태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다.

예술적인 시로 생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 시평집이 출간됐다.

문학평론가인 석연경 시인이 펴낸 ‘생태시학의 변주’(연경출판사)는 시 속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다의성을 생태학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시인이 해석하는 ‘시적’이라는 것은 ‘생태적’이라는 말과 궤를 같이한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심종록의 ‘에머랄드 빛 바퀴벌레말들의 생태에 관한 보고서’, 정현우의 ‘에스키모의 유령’, 이명의 ‘땅굴 같은 입’ 등 다양한 시를 분석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허상과 욕망, 생태계의 끌림과 흠림’에서는 생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를 평한다. 제2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생태적 시선’은 죽음을 인식한 인간이 유한한 삶에서 무엇을 욕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찰한다. 제3부 ‘공과 색을 넘어 생태적 사유’에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태의식이 강렬하게 드러난 시를 살펴본다. 마지막 4부 ‘현실의식과 생태의식’은 남북 정치 생태와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 문단의 생태 환경을 살핀다.

저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은 생태적 인드라망 안에서 서로 비춰주고 보듬어주며 사랑하고 살아야 함을 인식하고 실천했을 때 가능하다”며 “비생태적인 현실의 틀을 깨는 것이 시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우주 만물과 생태적으로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생태의식이 드러나는 시에서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라고 말한다.

한편 석연경 시인은 2013년 ‘시와 문화’에서 시로, 2015년 ‘시와 세계’에서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독수리의 날들’, ‘푸른 벽을 세우다’ 등 작품집을 펴냈다. 송수권시문학상 젊은시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청 ‘올해 문화유산’ 선정 한복·경복궁·팔만대장경 등 5종



문화재청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올해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 5종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한복, 경복궁을 비롯해 팔만대장경(사진),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선왕조 궁중음식과 떡이 포함됐다. 이들 대표 문화유산은 2000여 명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와 설문조사로 결정됐다.

외국인 조사 문화유산에는 유형 5개(송례문, 경복궁, 하회와 양동, 백제역사유적지구, 팔만대장경)와 무형 5개(한복, 아리랑, 판소리, 조선왕조 궁중음식, 떡)가 대상이었다. 또한 내국인 조사 5개 유산 결과로 한복 293명(28.8%), 경복궁 155명(15.3%), 팔만대장경 145명(14.3%), 백제역사유적지구 121명(11.9%), 조선왕조 궁중음식과 떡 118명(11.6%)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선정된 5개 대표 문화유산 홍보계획을 수립해 올해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정윤영 개인전, 3월2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점, 선, 면으로 표현해낸 인간 관계.’ 서양화가 정윤영 작가 개인전이 17일부터 3월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금호갤러리가 진행한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기획전이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조형의 기본적인 요소인 점, 선, 면을 이용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점과 선이 만나 면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인간관계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작가는 점은 인간, 선은 기억과 추억, 면은 우리의 인생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작품은 자로 그은듯한, 정리돼 있는 안정된 구도가 인상적이며 각각의 면과 점이 만나는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형성이 어우러져 ‘또 다른 화면’을 만들어낸다. 또 화폭을 장악하는 화려한 색감들은 서로 어울려 개성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작가는 화려한 색채는 빠르게 지나가는 사회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빛나는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정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서양화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회화문화재보존수복학과에 재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보러가는길’

‘온 더 포디움’

차준환 피겨 프로그램 음악 모음집 인기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거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의 프로그램 음악 모음집 ‘온 더 포디움’(On The Podium)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고 유니

버설뮤직이 16일 밝혔다.

차준환이 2010~2018년 시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클래식 음악들로 구성된 ‘온 더 포디움’은 2019년 발매됐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니버설뮤직이 차준환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며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온 더 포디움’도 1주일 만에 조회수가 2만회를 넘었다.

‘온 더 포디움’에서는 성악가 조수미, 피아니스트 백건우·야니톨 우고르스키·스비야토슬라프 리히테르·발렌티나 리시차,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두로비치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차준환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5위에 오르며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연합뉴스